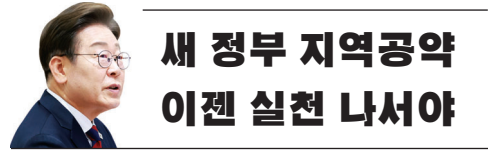


지지부진 전남의대·운영중단 무안공항 정권초 해결 기대



새 정부 지역공약
이젠 실천 나서야

〈3〉전남 의대·무안공항 활성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은 전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의 숙원사업 대부분을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 지역민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의료, 교육 인프라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열악한 전남에서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7개 공약 가운데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열악한 교통망 확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전남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4월과 5월 역시 연속 감소 추세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다. 고령화를 역시 전국 1위(26.5%)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고령화를 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건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다는 의미로, 고령으로 병원을 가야하는 날이 많고 심각한 질병을 앓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도 전남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료 취약지 98곳 가운데 17곳으로 가장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는 2.6명으로 전국 평균(3.2)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수도 4750명으로 강원도와 제주도 다음으로 적다.

의료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했던 공중보건의사(의과)도 지난 2020년 331명에서 2021년 327명으로 줄었고 2023년엔 300명대가 무너졌다(267명). 올해는 지난해보다 50명이나 감소했다.

인구 180만명의 전남도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전북(인구 175만명)에 2개, 충북(159만명)에 2개, 강원도(152만명)에도 4개가 있는 의대가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윤석열 정부에서 희망을 보이는 듯 했지만, 올해 4월 의·정 갈등과 비상계엄·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목포·순천대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은 머뭇

통합의과대학 2027년 개학 가능
군공항과 맞물린 무안공항 활성화
국가 지원·갈등 조정·보상 등 약속
철도 고속화 등 교통 인프라 기대

서게 됐다.

그러나 '6·3' 조기대선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변곡점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목포와 순천에 각각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을 전남 7대 공약 가운데 가장 위에 올려두면서 2027년 개학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재 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공사를 추진 중이다. 둔덕을 모두 철거하고 경량 철공구조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골자로, 이달 초까지 통합설계 후 무안공항은 8월 말까지 둔덕 제거 및 경량 철공구조로 재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공사 진행상황이 늦어지면서 재개항 시점은 최초 예상됐던 7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공약 사항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애기한 '국가 지원', '대통령 직접 책임 하의 갈등 조정', '무안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의 3원칙이 결국 무안공항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광주에 있던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이전되면 결국 대통령이 직접 무안공항을 정상화하고 나아가서는 남부권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이밖에도 부족한 SOC 확충에도 기대감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전라선 고속철도는 신속하게 서해선 철도 고속화는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경전선 전철화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히는 등 느리고 좁고, 굽어있는 전남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 사업이지만, 전남 도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을 향한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5·18 45주년 주남마을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12일 주남마을에서 '제12회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만장기 행진, 풍선 날리기, 살풀이 공연, 민주·인권·평화 손도장 찍기, 헌법 속 인권 찾기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수목비엔날레 주제곡 AI로 두 가지 버전 제작…투표로 선정

17일부터 8일간 투표 이벤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인공지능(AI)으로 주제곡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해 투표로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무국은 국제수목비엔날레를 알리기 위해 AI로 발라드와 록밴드 버전으로 만든 두 가지 버전의 '수목가'를 17일부터 8일간 투표로 선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뒤, '수목가'의 밴드 버전과 발라드 버전 두 곡을 모두 감상하고, 이벤트 페이지(<https://naver.me/F5aQ2mZO>)에서 마음에 드는 버전에 투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과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인공지능과 전통 예술의 만남이라는 색다른 시도에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전통 수목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제는 비엔날레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등 전남 일대에서 펼쳐진다.

/김민석 기자 mskim@

6월 추천 여행지…전남도 관방제림·윤제림·부흥마을·세랑제 선정

“사진 찍기·추억 만들기 명소”

전남도가 6월 추천 여행지로 담양 관방제림, 보성 윤제림, 강진 작전 부흥마을, 화순 세랑제를 선정했다.

담양 관방제림은 약 4만㎡ 면적에 수령 300년 이상의 나무가 빼곡한 곳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산림청이 주최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등 쾨나무와 뽕나무 밀로 산책하기 좋다.

보성 윤제림은 1964년부터 가꾼 민간정원으로 약 33만㎡ 면적에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 6만 그루

가 식재돼 있다. 6월 중순이면 만개하는 4만 그루의 수국이 장관을 이룬다. 윤제림은 숲속야영장(27개), 숲속의 집(12동), 아치하우스(18동), 단목 숙박시설(6동)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화순 세랑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다 무등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고요하고 아늑한 풍경이 장점이다. 뽕나무와 물안개가 핀 잔잔한 호수의 풍경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꼽힌다. 세랑제는 미국 언론 CNN이 '한국에서 꼭 봐야할 50곳'에 선정하기도 했다.

강진 작전 부흥마을은 오는 20~22일 '코끼리마늘꽃축제'가 열린다. 코끼리 마을은 강진군 특산물로 축제가 열리는 동안 부흥마을은 유럽의 시골길을 걷는 듯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샤스타데이, 나비바늘꽃 등 이국적인 꽃과 포토존, 휴식 공간이 마련돼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이 다양해 사진찍기 좋은 명소가 많다"며 "요즘 유행하는 프로필 사진을 남기면서 부모님과, 연기자녀가 함께 즐기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북 대남 소음 방송 중단…확성기 방송 중지 호응”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

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북한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시간대에 대남 소음 방송을 해왔는데, 현재까진 접경지역 전 지역에서 대남 방송이 멈췄다는 것이 군 당국 설명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새벽과 아침에는 대남 소음 방송이 있었지만, 오후에도 없었지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장정현(471025-2XXXXXX)
- 최후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내동길 134-29
-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암리 1346
- 피상속인 망 장정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제남지원 2025년36호로 신청하여 2025년 5월 16일 심판 인용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6월 13일
- 상속인 : 1.김은주(710321-1XXXXXX)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내동길 121-18 2.김은샘(730213-2XXXXXX) 충청남도 아산시 방정면 한들물빛3로 36, 109동 2101호(한들물빛도시시프리카더움) 3.김은갑(761217-1XXXXXX)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85
- 신고기간 : 2025. 6. 13. ~ 2025. 8. 23.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김은주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최포섭(290228-2XXXXXX)
- 최후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길 59
-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길 59
- 피상속인 망 최포섭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제남지원 2025년27호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6월 13일
- 상속인 : 임정희(610922-2XXXXXX)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384
- 신고기간 : 2025. 6. 13. ~ 2025. 8. 2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임정희의 주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출장비용****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매매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성복규(540916-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동구 계림로 16-1, 207호 (산수동)
- 피상속인 망 성복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3804호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6월 13일
- 상속인 : 성윤철(840917-1XXXXXX)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448번길 28, 217동 803호 (원전동, 원전레이크파크아파트)
- 신고기간 : 2025. 6. 13. ~ 2025. 8. 2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성윤철의 주소

73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영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동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신 전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명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신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봉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현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kwangju.co.kr

先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